

교수 성폭력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발언과 교수성폭력뿌리뽑기 연대회의의 활동의 의의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지역, 연령, 사건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떠나 어느 곳에서나 만연한 실정이며 이것은 대학이라는 진보적인 공간에서도,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사제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가 사회의 중요한 질서체계로서 작용하며, 스승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의이고 미덕인 사회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교수성폭력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그 현실을 고발하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교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항이라고 규정되며, 피해자는 독점적 권력을 형성하는 교수집단에서 이른바 ‘왕따’가 되어 배제되고 배척되기 십상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교수는 학생의 학점이나 추천서 등 학업과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수의 “권위”라는 것에 도전함으로써 학생의 인생이 받는 타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의 엄청난 침해를 받았을지라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쏟아지는 사회적 질타와 특히 교수성폭력을 담론화함으로써 받게 되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피해들에도 불구하고 발언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에서 이 사건들의 진정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사회적 발언을 하기 시작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며 사건 해결과정에서 더욱더 가중되었을 피해로 인해 상처받았을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에서는 현재 해결과정에 있는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 외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고대에서도 자행되고 있을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이러한 흐름을 통해 근절되고 담론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목소리가 그동안 숨겨야만 했던 피해자들에게 자그마한 용기가 되길 바라며 힘들고 험난한 과정일지라도 이를 통해 상처와 피해를 극복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들의 제대로 된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이 그간 받았던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피해들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학교당국과 사법부는 과연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에서 사건을 올바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성폭력 문제를 바로 인식하자!

* 사건, 사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성폭력이다, 성폭력이 아니냐의 논쟁을 부각시키며 성폭력의 개념을 한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고 있다.

성폭력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기보다는 어떠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강도가 강간에 가깝느냐 언어적인 폭력이나 눈빛이나 약간의 집요한 연락이나 하느냐에 따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게 된다. 자신이 이 문제를 아! 성폭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주로 신체적인 접촉이 함께 하였을 때만이 가능한 판단 지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 이 사회구조 속에서 어떠한 경험과 생활 속에서 아주 미묘한 행동에도 소스라치며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폭력의 지속이 불려오는 경험들과 사회구조를 인식한다면 비록 한 개인이 성폭력이다 아니냐를 느끼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를 주위 사람들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 애매모호하다로 일관된 피해자의 주관을 인정해야 한다.

성폭력의 문제는 비단 1, 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역사적 시간을 두고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오랜 기간의 경험 속에서 성폭력을 느꼈을 때의 감정이 객관화되었다 불쾌하다, 위협적이다를 평가름하는 것은 한 개인이 한 순식간에 드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 되었고 풀이되었다. 이전에는 말하지도 못하는 감정들을 표현해 내었으며 이러한 감정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흡사 다른 범죄에 닥칠 때의 위협과도 같은 두려움이지만 이를 제3자는 다른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의 원인은 바로 이 사회에서 성폭력을 다른 범죄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과 다르다. 그리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모호한 주관을 중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리쳐도 이 이야기는 입막음 당하는 것이다. 그러한 입막음이 또 다시 피해자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에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독 성폭력 범죄에서만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피해자의 이야기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성폭력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더 이상 피해자의 주관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인고의 과정이었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해 내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 감행되었던 것이며, 그 과정상에서 우리들의 제 3자가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하나의 원칙이다. 그것은 아직도 이 사회에서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신에게 쏠릴 화살들을 실로 온 몸으로 받고 나서라도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의 산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지를 우리는 온전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피해자의 왜곡된 혹은 잘못된 느낌이라고 설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는 애초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자신의 잘못으로 돌려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삶을 영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이러한 용기와 결단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건을 마주 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

학칙을 제기하게 되는 과정

성폭력을 대학 내에서 예방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반 성폭력 학칙을 각 학교는 하나 둘씩 제정하게 되었다. 실제로 대학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이 아직 대학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피해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내에서는 이를 책임지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 사건이 다시금 이 학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학내 구성원들을 강제하고 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 교육을 절차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학교가 시행하면서 보다 성폭력 뿌리뽑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인 편에서 보호받지 못할 피해자와 대학 내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고 정의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을 시에 이를 학내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보장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 학칙이다. 이러한 학칙 상에 나타난 개념들이 학내 전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었을 때 성폭력 근절의 의지도 함께 모일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가해자는 그 동안 바라보는 것은 한 번 잘못된 것인데 한 번 용서하고 이후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혹은 그 사람은 정말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시 용서하고 이 사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극단을 달리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가해자를 고립시키거나 용서하는 것 그것 모두가 대안일 수 없다. 문제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약속하는 과정상에서 정말로 다시는 성폭력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한 주체로서 서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더러운 일을 당했다며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나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자책하는 것 만으로는 온전한 해결을 보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의 공개화 과정상에 자신이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되새겨 보며 그 안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 과정상에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문제의 해결을 보다 옳은 방향으로 진행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문제의 해결은 보다 쉽게 보일 것이다 그 동안 발뺌하거나 피해자를 몰아세우거나 했던 모습이라면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과정속에서 진정한 성폭력 근절의 주체로 서야 할 것이다.